

01 교회소식

생명의 말씀과 권능의 역사를 담아

마지막 때에 전 세계 만민에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전해 온 만민뉴스가 어느덧 지령 700호를 맞았다.

02 생명의 말씀

온전한 선을 이루려면

최고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떠한 영혼을 살리고자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상대의 마음을 살필 수 있어야 한다.

03 축복의 비결

권능의 산 증인들

주님의 사랑과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으로 응답과 치료를 받아 행복의 주인공이 된 만민뉴스의 간증자들을 만나본다.

04 간증 특집

“하나님의 축복은 계속됩니다!”

만민뉴스 간증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린 뒤,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니 날마다 축복이 넘친다는 성도들의 고백.

# 만민뉴스

제700호 2015년 8월 23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 “영혼까지 행복해지는 좋은 소식이 넘쳐요!”



32개 언어로 발간된 만민뉴스는 전 세계 무수한 영혼에게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빛 되신 하나님 말씀과 권능의 역사 등 읽을수록 새롭게 변화되는 생명력 있고 차별화된 콘텐츠를 담고 있다.

### 생명을 살리는 신문, 만민뉴스 지령 700호 맞아

전 세계 영혼들이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32개 언어로 발간되는 ‘만민뉴스’가 지령 700호를 맞았다.

만민뉴스는 읽을수록 믿음이 더해지는 생명력 있는 콘텐츠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뿐 아니라 신앙 성장과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큰 힘이 돼 왔다.

1면에는 해외 연합대성회, 목회자 세미나 및 손수건 집회 등 우리 교회 권능의 사역에 관한 기사와 교회 행사 소식, 2면에는 응답과 축복의 길을 제시하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설교가, 3면에는 마음을 진리로 변화시킴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노하우가 담긴 기획기사가, 4면에는 전 세계 만민의 성도들이 하나님 사랑을 체험한 생생한 신앙 간증들이 실려 있다.

전 세계 무수한 영혼이 만민뉴스를 통해 개종함으로 구원의 길로 인도받고 있다. 작년 7월, 힌두교도였던 인도 위제이 락시미 성도는 이웃이 건네 준 만민뉴스 타밀어판을 읽고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은 정

말 살아 계시며 나의 소원도 응답받을 수 있겠다.’라고 결론짓고 첸나이만민교회를 방문했다. 신앙생활을 시작해 말씀을 듣고 환

자기도를 받으면서 장막의 문제와 부채를 해결받고 아들의 피부병까지 치료받았다.

그녀가 기독교로 개종한 것은 말할 나위도 없고 남편도 전도돼 함께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행복을 맛보고 있다. 이 외에도 만민뉴스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함으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이 무수히 많다.

광주만민교회 박은경 권사는 “귀갓길 버스 정류장에서 어떤 분이 만민뉴스를 들고서 계시다가 한 번 읽어 보라고 주셨습니다. 험한 세상살이에 찌들고 고통받던 제게 주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신 사랑임을 나중에야 깨달았지요.”라고 했다.

그 뒤 그녀는 이재록 목사의 간증수기 『죽음 앞에서 영생을 맛보며』와 ‘십자가의 도’ 설교 테이프를 통해 큰 축복을 받았다. 심장병, 위장병도 치료받고 이제는 근심, 걱정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틈틈이 만민뉴스를 전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은 만민뉴스에 게재된 생명의 말씀과 간증의 내용을 붙들고 기도하며 믿음 성장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일본 이와모토 요오코 집사는 “만민뉴스는 신앙생활에 매우 유익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만민뉴스의 간증이 도움이 되며, 제가 시험을 만났을 때에도 마음에 새긴 간증이 떠올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지요. 또 다양한 주제로 하나님 말씀이 알기 쉽게 정리돼 있어서 아주 유익하고 귀한 영의 양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페이스북에도 만민뉴스의 칼럼, 간증, 기사 등을 올리는데 반응이 좋아서 매우 기쁩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스라엘의 리나 다박 히브리어 번역자는 “설교를 통해 크리스천의 삶을 사는 데 중요하고 필수적인 비결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아들이 이재록 목사님의 시공을 초월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기적적인 치료 역사를 체험했기에 만민뉴스에 실린 간증은 더욱 감동이 됩니다.”라고 말했다.

만민뉴스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간체, 번체), 러시아어, 스페인어, 파갈로그어, 일어, 불어, 힌디어, 타밀어, 포르투갈어, 네덜란드어, 덴마크어, 핀란드어, 에스토니아어, 불가리아어, 우크라이나어, 히브리어, 우르두어,

태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인도네시아어, 비사야어, 미얀마어, 스웨덴어, 아랍어, 네팔어, 독일어, 이태리어, 싱할라어 32개의 언어로 발간돼 성경의 복음과 권능의 역사를 사모하는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활용되고 있다.

네팔의 이해천 목사는 “노방전도를 할 때는 물론, 목회자들과 지교회 성도들에게도 만민뉴스를 전하고 있습니다. 신문을 읽은 타교회 성도들이나 이방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전화로 문의해 오기도 하지요. 만민뉴스에 담긴 내용들을 소중히 여기는 성도님들을 보면 행복합니다.”라고 말했다.

만민뉴스는 1987년 5월 17일 ‘만민중앙 소식’으로 창간돼 2009년 10월에는 ‘만민뉴스’로 제호를 변경, 매주 인터넷과 종이신문으로 동시 발간해 문서선교에 일익을 감당하고 있다. 또한 세계 교구화에 발맞춰 전 세계의 은혜로운 뉴스와 간증을 실시간 수신해 더욱 신속히 보도하고자 아동에서 장년, 국내 및 해외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뉴스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있다.

이 세상 어떤 신문도 제공할 수 없는, 참 생명과 행복한 소식이 담긴 만민뉴스를 통해 영적 믿음이 자라고 기쁨이 샘솟는 성령의 역사가 불일 듯 일어나기를 기도한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요한일서 1:5)

# 온전한 선을 이루려면

보기 싫다고 꺾어버리고, 꺼져가는 심지는 연기와 그을음을 없애려고 꺾버립니다. 즉 “내가 옳다.” 하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나와 다른 의견은 무시하고 누르고자 하지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성격이 맞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때 내 주장을 앞세워 상대를 누르고자 하지는 않는지요? 예를 들어, 회의를 진행하는데 한 사람이 반대되는 의견을 주장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면 ‘저 사람은 사사건건 내 의견에 반대만 하네. 나를 무시하냐?’ 하고 불편해집니다. 그러면 혹여 상대의 의견을 잘 들어보지도 않고 단번에 잘라 끊으며 상대의 말문을 막아버리지는 않습니까?

또한 마음에 선을 이루지 못한 만큼 살리는 척하면서 짓누르려는 모습도 나옵니다. 예를 들어, 서로 성품이 달라서 부딪히는 A와 B가 있는데, 어느 날 윗분이 A에게 “B는 잘 지냈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때 A가 기다렸다는 듯이 “안 그래도 B 때문에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요즘 모임에도 자주 빠지고 사람들과 부딪혀 사람들이 힘들어하니 B를 좀 도와주세요.”라며 답합니다. 자신이 부딪히면서 B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힘들어한다며 자신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남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이는 윗분이 B를 지적해 꺾어 주면 좋겠다는 마음인데도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니 ‘나는 상대를 위해 걱정하며 선한 말을 했다.’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말과 행동이 상대를 살리고자 하는 선인지 아니면 상대를 꺾기 원하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 2.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한다면 내가 영광 받고자 하는 마음은 없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러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했습니다. 믿음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래서 먹고 자는 것도 강건해 충성하기 위함이니 이런 중십일 때는 하나님께서 영광 돌리는 향으로 받아 주시지요.

반면에 겉으로는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지만, 중심은 자기 영광을 구하므로 하늘의

상급이 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봉사하고 구제하며, 전도하고 영혼을 돌아보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우리의 충성을 통해 영혼들이 구원받고 축복받으며, 부흥되면 그만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에게도 영육 간에 축복이 임하지요. 이런 충성의 행함 속에 혹여 내 자랑과 영광을 구하는 마음은 없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도 대상자가 있어서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을 하며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고 헌신적으로 해 그 영혼이 곧 교회로 인도될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도 대상자를 다른 사람이 교회에 등록시킨 것입니다. 이때 선한 마음이라면 ‘내가 저분을 전도하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알면서 자기 이름으로 가로채다니 참으로 뻔뻔하다.’ 하며 감정을 내지 않습니다.

다른 예로, 구역장이 충성해 부흥도 하고 구역원의 믿음도 자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조직이 개편돼 자신이 열심히 일귀 놓은 구역을 다른 사람이 맡게 됐습니다. 이때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들을 위하는 마음이라면 자신이 담당했던 구역원들이 좋은 분을 만나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할 것을 기대하며 후임자에게 잘 연결시키려 할 것입니다. 반면에 ‘내가 부흥시키고 관리해서 일꾼으로 키웠는데, 내 수고가 헛되구나. 내 구역이 좁아졌네.’ 하고 서운해한다면 그만큼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이지요.

이렇게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이 있으면 열심히 충성하다가도 어느 순간 변질될 수 있습니다. 열매가 속히 드러나지 않거나 그 열매가 드러난다 해도 자신의 공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낙심하며 “지친다, 힘들다.” 하면서 열정도 식어집니다. 따라서 자기 영광을 구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해야 하나님께서 영원한 상급과 영광으로 갚아주시 수 있습니다.

## 3. ‘내가 상대의 마음을 살피는지, 아니면 상대가 나의 마음을 살피기를 바라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자연히 받는

것보다 주는 것에 더 힘쓰게 됩니다. 연약하고 문제 있는 양 떼에게 더 마음을 쓰며 간절히 기도하며 살피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 충만함이 떨어지면 받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커질 때가 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달려왔는데도 나는 왜 축복의 열매가 없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이 틈타면서 점점 더 육신의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괴롭히지요. ‘나는 그동안 남보다 열심히 충성했는데 아무도 몰라주네.’ 하며 힘이 빠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전에는 영혼들의 문제가 먼저였는데 이제는 내 연단과 어려움이 앞서지요.

‘목사님은 나를 위해 기도하시나? 다른 분이 연단 받으면 자주 심방하고 금식까지 하시더니 나는 이렇게 힘든데도 무관심하시네.’ 합니다. 누구에게 잘하라는 권면을 받으면 ‘내 형편도 모르면서 찌르기만 한다.’며 상대에게 서운함만 품습니다.

이처럼 오랫동안 일꾼으로 충성하고 많은 선의 말씀을 듣고 배웠다 해도 그 선을 자기 것으로 이루지 않으면 연단을 받을 때 그대로 드러납니다.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고 살피기보다 누가 내 마음을 알아주고 섬겨 주기를 바라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고통으로 인해 탄식하신 것이 아니라 애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또 두고 가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셨지요. 자신의 고통보다 다른 사람의 고통이 더 먼저 보이는 마음, 그 마음을 헤아려 주고 도와주려는 마음, 바로 이러한 선의 마음을 사모하며 이를 때라야 신속히 온 영의 열매로 나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은 모양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온전한 빛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온전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자녀들도 거룩하고 온전하길 원하시지요. 매 순간 자신의 마음과 입술, 행실을 점검함으로 신속히 영적 성장을 이취 머리로 만 아는 지식적인 선이나 자기 의와 틀 속에서 나온 육적인 선이 아니라 온전한 선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횡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4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 차량국(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성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성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찬양예배 [아동부]	3:00 PM
다녀오실 때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독서 우송료만 정가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2074

우리은행 1002-253-985877 (예금주 이경진)

4면에 이어

**제344호 간증자**

**버지니아 집사** (해외 교구, 콩고민주공화국)

**“치료받은 어머니를 생각만 해도 행복합니다”**



2002년 여름, 프랑스에 계신 어머니가 백혈병에 걸렸다는 슬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약을 복용하며 치료받기 위해 노력하셨지만 오히려 병세는 악화됐습니다. 제대로 드시지도 못하고 자주 구토를 하시니 몸은 극도로 쇠약해져 체중이 100kg에서 38kg까지 내려갔지요. 결국 어머니는 삶을 정리하며 유언장과 귀중품들을 한국에 있는 제게 보내셨습니다.

2004년 5월, 저는 '제12회 이재록 목사 2주 연속 특별 부흥성회' 시 어머니의 사진 위에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기도를 받은 뒤 믿음의 행함을 열심히 해나갔습니다. 그러던 2006년 가을, 어머니의 몸에 현격하게 힘이 주어지고 살이 오르기 시작하더니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지요. 2007년 6월 정기검진 결과, 암세포가 발견되지 않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2015년 8월 현재도 어머니(오른쪽 사진)는 건강하시고, 인터넷으로 만민중앙교회 예배를 드리고 당회장님의 신앙서적과 만민뉴스를 보시며 은혜를 받고 계십니다. 이처럼 치료받아 건강하신 어머니를 생각만 해도 중심에서 감사가 넘치고 행복합니다.

이 일 후 저도 영적 믿음이 성장해 주일 저녁예배 시 불어 통역과 해외 교구 심방 시 필요에 따라 통역 봉사를 하며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제509호 간증자**

**씨티 바브 집사** (인도 첸나이만민교회)

**“교회에서 충성하는 일꾼의 가정이 됐습니다”**



저는 주님을 영접하기 전, 알코올 중독과 마약 복용으로 인해 가족에게 커다란 두려움의 존재였습니다. 늘 술에 취해 밤이면 아내와 아들들에게 칼을 들이대고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등 폭력을 일삼으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술을 마시지 않으면 두통과 손 떨림 증세가 심해 어쩔 수 없이 마시곤 했습니다.

그러나 가족은 저(사진 뒷줄 맨 왼쪽) 때문에 심적 고통을 크게 받은 데다 질병으로 인한 고통까지 매우 심했습니다. 아내는 갑상선 및 심장질환으로 호흡이 곤란했고 오줌소태 등으로 힘들어했으며, 큰 아들은 시력 약화와 두통으로, 작은 아들은 몽유병 증세로 밤에 돌아다니기 일쑤였지요.

하지만 2007년 11월에 전도를 받아 첸나이만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후에는 20년간 중독된 술과 10

년 이상 복용한 마약을 쉽게 끊을 수 있었고, 아내와 아들들의 질병도 깨끗이 치료받았습니다. 그 뒤 제 삶은 180도 바뀌었고, 신앙생활은 물론 오토릭사 기사를 하며 성실한 가정이 되니 가족도 매우 행복해합니다.

2014년 말에는 힌두교를 신봉하고 우상숭배가 심했던 큰형님 가족과 아버지까지 전도돼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지금은 저희 가족 모두 교회 일꾼이 되어 저는 남선교회 회장으로, 아내는 여선교회 회장과 아동주일학교 교사, 성가대원으로 봉사하고 있으며, 큰 아들은 청년부 찬양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힌두교였던 저희 가정이 주님을 영접함으로 영육 간에 축복받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제543호 간증자**

**김석현 집사** (마산만민성결교회)

**“지난 모든 연단과 역경이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경제관이 제대로 형성돼 있지 않던 청년시절, 저는 의욕만 앞서 무분별한 카드 사용과 보증, 무리한 사업시도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날로 깊어갔습니다.

2001년 결혼 후에도 부채를 갚고자 카드 대출까지 받아 주식에 투자했는데, 결국 빚만 눈덩이처럼 불어났지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금 정산으로 부채를 일부 청산하며 더 많은 수입 창출을 위해 사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건강식품전문점을 오픈했습니다. 사업이 어느 정도 서서히 안정되니 또 주식에 투자해서 다시 빚더미에 올라 앉았지요.

그러던 2008년 11월, 점포에 화재가 났는데 놀랍게도 화재가 발생한 바로 옆 건물은 불에 탔음에도 저희 점포만 멀쩡했습니다. 옆 건물과는 불과 8센티미터 간격이 났었는데 저희 건물에 불이 옮겨 붙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주신 것입니다.

이 일로 저는 하나님께서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을 통해 축복의 비결을 누누이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정도를 걷지 않으며 내 욕심대로 살아온 지난날들을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그 뒤 서울중앙에셋(주) 마산 지점에 입사했는데, 값진 연단을 받은 자로서 축복을 받아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하나님 나라에 심고자 힘썼지요.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첫 달부터 회사 전체 2등으로 축복해 주시더니 입사 1년 후 부채를 모두 해결하고 승진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심으면 심을수록 축복은 더 크게 넘쳐만 갔지요.

2015년 5월에는 제 마음의 악을 더 깊이 발견하며 간절히 아름다운 영의 마음을 이루고자 달려가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아들 지훈이(5세)가 폐렴 진단을 받고 7일 동안 온몸이 불덩이가 돼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잦은 헛소리와 탈수 증상까지 보였습니다. 입술은 메마르고 갈라져 피가 나고 목이 찢어져라 기침을 했지요. 복부 횡경막까지 폐렴균이 전이되고 간수치도 정상인의 4배까지 올라갔습니다.

저희 부부는 바로 금식에 들어갔고 무뎠던 마음과 영적 교만을 발견하며 내 탓임을 깨우쳐 통회자복을 하니 아이의 열이 내리고 깨끗이 치료됐습니다. 이후 겸비한 마음으로 감사하며 헌신하리라는 뜨거운 마음으로 달려갔지요. 그 결과 6월 초, 저는 영의 마음을 이루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모든 연단과 역경은 모두 주님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기까지 오래 참아 주시고 기다려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p><b>8 2015 AUGUST</b> 2015.08.23~08.29</p> <p><b>주요 프로그램 안내</b></p>	<p><b>이재록 목사의 생명의 말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랑장 14-18</li> <li>우리의 열심은</li> <li>의와 인과 신 2</li> <li>하나님의 사랑</li> <li>공간과 차원 3-6</li> <li>하나님의 뜻 2</li> <li>위로부터 난 지혜 2-6</li> <li>사랑 1-4</li> <li>공부 잘하는 비결 9-11</li> <li>요한계시록 강해 21-25</li> <li>온전한 심일조와 환물 1-4</li> </ul>	<p><b>GCN TV설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멈추지 마시다 1 (이수진 목사)</li> <li>교만 3 (이미영 목사)</li> <li>나의 수고는 2 (이미경 목사)</li> <li>영의 세계 42 (이희선 목사)</li> <li>옴기 강해 17 (신동초 목사)</li> <li>열재앙 2 (정구영 목사)</li> <li>성령의 9가지 열매 7 (김수정 목사)</li> </ul>	<p><b>예능 프로그램</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곱달공 어여쁜 울동 41</li> <li>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37</li> <li>창조와 과학 13</li> <li>내 마음의 찬양 16</li> <li>옛날 옛적에 12</li> <li>English 11</li> <li>즐거운 요리 17</li> <li>모두 드려요 33</li> </ul>	<p><b>해외성회 및 교육</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필리핀 연합대성회 3</li> <li>믿음으로 걸은 길 4</li> <li>회상 (시즌2) 1</li> </ul> <p><b>GCN HD 채널 ktolleh tv 882번</b></p>
---	---	--	--	--

# “내 주님을 만나 내 삶은 변했네~”



700호를 맞이까지 '만민뉴스'에 실린 국내외 성도들의 간증 가운데 몇 편을 선정해 당시의 간증을 회고하며 지금의 변화된 그들의 삶과 축복을 통해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

## 제97호 간증자

조현숙 권사 (가나안선교회 총지도교사, 여선교회 총연합회장)

##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행복합니다”



1991년, 생후 2개월 된 딸이 '상실성 빈맥'이라는 심장병을 가지고 태어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 병은 완치될 수 없으며 수술에 성공하더라도 길어야 18세까지 살 수 있다고 했지요. 1993년 초 이웃에게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십자가의 도' 설교 테이프를 받아 듣게 된 저는 말씀을 듣는 순간 답답했던 가슴이 후련해졌고 설교 후 환자 기도를 통해 박사사탕을 먹은 것 같은 시원함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임했습니다. 단 한 번의 기도로 그동안 저를 고통스럽게 하던 눈 통증과 알레르기성 비염, 주부 습진 등 모든 질병을 치료받았지요. 그해 5월 3일, 우연히 국민일보에 게재된 '제1회 이재록 목사 2주 연속 특별 부흥성회' 광고를 접했습니다. 저는 너무나 반가웠고 그때 시계를 보니 첫 집회 시작 30분 전이었지요. 허겁지겁 딸을 데리고 만민중앙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말씀에 은혜를 받으며 매시간 통회자복을 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는 각오와 힘이 솟았지요. 1993년 5월 30일, 온 가족이 교회에 등록한 뒤 당회장님께서 설교 후 해 주시는 환자기도를 믿음으로 받으셔서 놀랍게도 딸의 심장

병이 치료돼 지금까지 건강합니다. 그 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주의 일에 충성하던 저희 부부에게 어려운 일도 있었으나 당회장님께서 증거해 주신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감사하면서 저희의 신앙을 돌아보며 기도하니 오히려 영혼이 잘되는 축복이 임했지요. 아들 송승철 형제는 학창시절 친구들과 어울려 방황했으나 목자의 사랑을 깨달은 후에는 신속히 변화돼 교회 레위족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청년선교회 연합회장으로도 충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딸 송지형 전도사도 주의 종이 돼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영혼들에게 전하고 있지요. 남편 송석길 장로님은 남산교회 총연합회장과 1청년선교회 지도교사로, 저는 여선교회 총연합회장과 가나안선교회 총지도교사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목자를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의 저희 가정은 없었을 것입니다. 목자의 사랑으로 영과 온 영의 마음을 이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가정으로 인도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 제183호 간증자

박재우 집사 (2-3남선교회 선교회장)

## “다복한 우리 가정,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1998년 만민중앙교회에 출석하면서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마음의 짐을 얻고 위장장애와 허리 통증을 치료받았습니다. 당시 저희 부부는 결혼하고 2년이 넘도록 아이 소식이 없어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꿈에 당회장님께서 한 아기를 오른팔에 안고 오셔서 제게 주시면서 “예림이라고 부르세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뒤 아내가 몸에 이상을 느껴 병원을 찾았는데 임신 7주였지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아들과 딸을 더 주셔서 다복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건강하고 착하게 잘 자라고 있지요. 주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해 온전한 주일성수와 십일조는 물론, 때를 따라 물질로 심으며 기도를 쉬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이 없이 늘 채워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선교회와 구역의 영혼들을 목자의 마음으로 돌아보며 받은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응답하시고 축복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 제620호 간증자

소피 아치영 성도 (케냐 나이로비만민교회)

## “권능으로 얻은 딸, 예쁘게 자라고 있어요”



2013년 4월, 저는 임신 7주라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뒤 병원 검사 결과,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지요. 그런데 저는 아들보다 딸 낳기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2014년 1월 5일, '재창조의 역사'에 관한 설교를 듣다가 저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권능을 통해 태중의 아들이 딸로 바뀔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해 오던 중, 1월 17일 금요일아침에 시 녹화된 만민매거진을 보며 당회장님의 환자기도를 받았지요. 당시 출산 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

는 아들이 딸로 바뀌었음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다음 날 밤 11시, 아기를 출산했는데 과연 3.6kg의 건강하고 예쁜 딸이었지요. 딸아이는 아장아장 걸어 다니며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찬양과 율동을 좋아해 울다가도 만민중앙교회 금요일아침예배 2부 동영상을 보여주면 충만하게 찬양하는 성도들의 모습에 울음을 멈추고 즐거워하지요. 저도 축복받아 교회에서 찬양 인도자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살아 계셔서 믿음대로 역사해 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어서 3면

###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일아침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70-8223-4191~4, 010-4182-4194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3, 백성B/D 7층 ☎051)326-1537, 010-7213-6207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3층 ☎010-8020-7333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남로 50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시 서구 차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2290-7779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동천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조말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학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2634-5478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변영1로 34 3층 ☎041)881-7000, 010-3030-7025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변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9271-7017
- 새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층 ☎055)852-5815, 010-9196-39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21 3층 ☎055)322-7055, 010-6605-2254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5층 ☎055)289-9522, 010-9331-4405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861 ☎055)648-9107, 010-7224-8891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신부로 3길 8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백률로 76번길 45-1 ☎054)748-5777, 010-3747-5777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177 4층 ☎054)281-9367, 010-8433-207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3층 ☎054)281-2468, 010-9773-701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중원빌딩 301호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대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등길 27, 2층 ☎070-4028-2515, 010-2536-2515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3동2층) ☎063)853-0675, 010-3637-0263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3층 ☎063)468-7027, 010-7777-702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113 3층 ☎033)261-4217, 010-2759-701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3층) ☎033)637-0271, 010-7733-1327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평3길 11, 3층 ☎033)641-3790, 010-6334-7750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76-1014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평곡산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6395-0143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424, 3층 ☎02)489-3766, 010-7103-4097
- 김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7133-9770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아람로 95 ☎010-7103-4097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B/D ☎031)905-2419, 010-2276-101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우빌딩 지하 ☎02)489-3766, 010-7103-409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7133-9770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번길 43, 2층 ☎031)202-8480, 010-8331-1136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중리천로 126-7 ☎031)635-9103, 010-9458-3922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